대선정국 '南北美 해빙' 돌풍 부나

범여권 '평화개혁세력' 결집 열세 반전 계기
한나라당 '냉전수구세력' 이미지 강화 우려

2·13 베이징(北京) 6자회담 합의 이후 북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되고 올해 중 남북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남북 및 북미 관계가 12월 대선의 주요 쟁점 및 변수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지난 5~6일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그룹회의, 지난 10일 남북적십자사의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공사 재개 합의, 지난주 이해찬 전 총리의 방북, 13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방북, 또 올해 중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이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설 등 6자회담 합의 이후 한 달 동안의 변화는 그 내용과 속도 면에서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경제와 민생문제 위주로 흘러가던 대선 정국에서 평화·통일·외교 등이 결정적 쟁점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때문에 범여권은 북미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이 이뤄질 경우 대선구도의 열세 국면을 반전시킬 수 있는 중대한 계기를 맞게 된다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범여권으로서는 이를 계기로 참여정부 집권 이후 대북송금 특검, 남북관계 경색, 북한 핵실험 충격 등으로 흩어져있던 진보성향 유권자들이 '평화개혁세력'이라는 큰 우산 아래 하나로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한나라당 내부의 정책적 혼란이 가져올 '반사이익'에도 기대를 걸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등 범여권 후보들이 최근 들어 부쩍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확대하며 이명박·박근혜 등 한나라당 주자들의 경직된 대북관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압도적 우위를 유지해왔던 대선구도가 한 순간에 바뀔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자칫 북미·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가 한나라당에 덧칠된 '냉전수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도 향후 대북정책 노선을 유연한 방향으로 선회할 것을 고려하면서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대북 강경파로 분류됐던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은 최근 대북 발언 수위를 조절하거나 아예 목소리를 아끼는 듯한 분위기다.

한나라당 전략통인 정형근 의원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오면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여권에 대단한 호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내 '미국통'인 박진 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북·미 데탕트 프로젝트가 가동돼 올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 확실하다"며 종전의 냉전적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전면쇄신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 신독트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북핵실험 후 대북강경 대응을 앞장서 주장해온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한반도 해빙'에 한나라당 싱크탱크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있는가를 극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환호하는 육사 졸업생도들 12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 63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생도들이 행사를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 방북보다 정상회담이 중요"

DJ, '한반도 해빙' 강연정치 재개

2·13 베이징(北京) 6자회담 합의 이후 북미관계 정상화 기운이 무르익는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해빙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이달부터 외부 강연 일정을 재개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우선 13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에서 '6자회담은 성공할 것인가'란 주제로 특강을 한다. 이날 강연은 지난해 12월 노벨평화상 수상 6주년 기념행사에서 '밴 플리트'상 수상 연설을 한 이래 첫 외부강연 일정이다.

그는 27일에는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로마협정 50주년 EU(유럽연합) 기념행사'에서 동아시아 지역통합 및 한반도 평화발전에서의 유럽의 역할 등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내달에는 국내 대학 강연을 계획 중이다.

또 5월에는 해외로 시선을 돌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이 수여하는 '자유상' 수상차 독일을 방문, '한반도 해빙정국'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그는 비공개 일정으로 12일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재미한국인 지도자들의 모임인 '넷칼(Net-KAL)' 회원 50여명을 만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은 상반기 중 강연 및 대화를 통해 북한과 미국에 대해 관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방북 역할론 보다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정부에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김 전 대통령은 작년 6월에 방북이 연기된 이후 남북 어느 정부로부터 방북요청을 받거나 방북계획을 추진한 것이 없다"며 "남북 양측의 요청이 있으면 갈 용의는 있지만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등 당국 간 대화와 협력이 중요한 때라는 게 김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치매·뇌졸중 연구 '국가 뇌 과학연구소' 설립

치매나 뇌졸중, 각종 노인병 등 뇌 관련 질환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국가 뇌 과학연구소'가 설립된다.

과학기술부는 현재 분야별로 나눠 추진되고 있는 뇌 연구를 종합, 포괄할 수 있는 뇌 연구 기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뇌 과학연구소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관계전문가들로 '국가 뇌 과학연구소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

과기부는 추진위를 통해 4월까지 국내외 뇌 과학연구소 사례를 조사하고 국내의 연구인력, 예산, 장비 및 시설 등을 정밀 분석한 뒤 6월까지 설립초안을 마련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설립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설립방안으로는 ▲과기부 뇌 연구 프런티어사업단 확대 발전 ▲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 설립 및 독립기관화 ▲정부·민간, 지자체 참여 독립법인 ▲주요 연구기관을 연결한 네트워크 연구소 등 크게 4개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형근 "6~7월 南-北-美 정상회담 가능성"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12일 남북정상회담 추진 논란과 관련, "6~7월에 한반도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 정보통인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6자 외무장관 회담이 5월이나 6월 초 정도에 열리고 여기서 핵불능화 조치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무장관 회담에서 종전협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곧바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건너 와 한반도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내지 중국까지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돈다"면서 "원만히 추진되면 남북한은 물론 동북아에 획기적 변화가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한미 FTA 8차 협상 종료

핵심쟁점은 '고위급'서

19일부터 미국서 회의…쇠고기·자동차 이견 여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비핵심 분야의 타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쇠고기와 자동차 등 핵심 쟁점들을 둘러싼 이견은 아직도 큰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12일 끝난 8차 협상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고위급 회의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든 협상시한인 이달 중 협상을 종료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일단은 타결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면 3월말까지 타결하지 못하고 무산될 여지도 없지 않다.

◇**타결 분야 증가**=우선 전체 19개 분과 23개 분야(통관·원산지, 통신·전자상거래, 분쟁해결·투명성·총칙 등 분과는 대상 분야가 2~3개임)중 경쟁, 정부조달, 통관 등 3개 분야는 완전 합의를 봤고 환경·전자상거래·기술표준(TBT)·위생검역(SPS)·금융분야 등 5개 분야는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핵심 쟁점중 하나인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 간접수용의 범위를 둘러싸고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한 상태이며 서비스 역시 88개 유보 목록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진통 불가피한 쇠고기·자동차**=미국은 지난 1년여 간의 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철폐' 원칙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쌀을 비롯해 여러 민감품목에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농업 자체의 최소 기반조차 남기 힘든 우리측으로서는 정치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수용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다.

특히 공식적으로는 FTA 의제가 아니라고 양측이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상 분위기를 좌우하는 쇠고기의 경우도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자동차 역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개성공단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다.

◇**향후 협상 어떻게**=전체 협상을 조율할 고위급 회의는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만일 고위급 회의를 통해 일괄 타결을 위한 '패키지'가 마련되면 협상은 마무리된다. 패키지가 마련된 뒤에는 양국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한번 더 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며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양국을 대표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이후 협정문에 대한 양국 대표의 가서명이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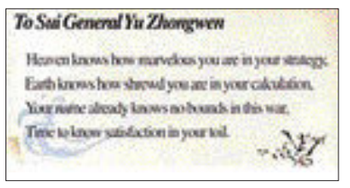
다만 양국의 비준은 우리의 경우 농민들의 반대 등에 따른 정치적인 어려움이나 법률 개정 등 준비가 필요한 만큼 그 시점은 2009년이나 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달 말까지 타결하지 못하고 무산되면 협상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재개까지는 장기간 공회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국 농업팀, 美에 을지문덕 漢詩 보내

'神策究天文(신책구천문)이요 妙算窮地理(묘산궁지리)라, 戰勝功旣高(전승공기고)이니 知足願云止(지족원운지)라.'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산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도다.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 바라노라)

12일 한미FTA 우리측 협상단에 따르면 농업협상팀은 갈수록 맹렬한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미국 협상단에 고구려 을지문덕 장군이 지은 한시 '여수장 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의 원문과 영역본을 건넸다.

쇠고기, 오렌지 등 민감 품목에 대한 거센 개방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측 협상단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를 전한 것은 농산물 분야에서 이미 한국이 어느 정도 양보안을 내놓았으니 미국도 공세수위를 조절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시의 힘을 빌린 우회적 요청에 미국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